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277-30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오늘날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역할*

김웅태

(가톨릭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오늘날 교육에 종사하는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이 가톨릭적인 교육의 소명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시대인 오늘날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반면에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인간성의 상실과 엄청난 재앙이 예상된다. 물질과학문명의 발전과 아울러 정신문명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이래 초세기부터 종교교육과 인간교육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실시해 오고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대희년을 전후하여,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가톨릭 신자 교수들의 교육적 역할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교회문헌들을 통해 고찰하였다. 가톨릭 교수들은 일반 교수들처럼 연구, 교육,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가톨릭계 대학교의 제도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학문과 교회와 사회발전에 큰 역할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가톨릭 교수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속화,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적 가치를 학문적으로 수호하고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이 요청된다. 교수들은 대학 공동체의 수준 높은 구성원으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며 그들의 학술강연과 견해표명으로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 분야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정신과 입장을 함양하여 신앙과 이성,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정립하고 문화와 종교들 안에 내포된 보편적 가치들을 찾아내어 복음적 가치들로 승화시켜야 할

*) 이 논문은 한국 천주교 2000년 대희년의 교육분야 행사로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분과위원회와 한국가톨릭교육자협의회가 “교육과 복음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가톨릭교육자대회(2000년 5월 21일, 서강대학교 대강당)의 대학부문에 발표된 글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 논문의 각주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반복된 내용을 피하기 위해 약자로 인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말미에 가나다순으로 수록된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과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 불의와 구조적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간 세상을 하느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로 건설하며, 다같이 하느님의 축복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역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주제어: 가톨릭교수, 교육, 가톨릭대학교, 복음적 가치, 신앙과 이성.

《Abstract》

The Role of the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Today

Ung-Tai KIM

(Professor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educational roles of the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s conform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In the new millenium today the human life gets more and more easy and convient owing to the developpement of the scientific field and of the information technique. On the contrary it is expected that the wrong utilisation of such a modern convenience brings about terrible disaster and the loss of humanity. The symmetrical developpement of the human civilisation will get accomplished by the harmony of the material and the spirit.

The Catholic Church, since its establishment by Jesus Christ, carries out the religious education with a great concern. Now at the occasion of the Great Jubilee the 20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it is significant to explain the role of the professors engaging in education at the Catholic universities. This paper was examined with chiefly a number of the ecclesiastical documents adjusting the focus at the educational role and mission of the Catholic professors.

In the course of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atholic professors perform three main duties such as rechearch, education and service as the other professors. Moreover they are requested to protect the institutional identity of the Catholic universities, and to contribute to progress of the society, the Church and the learning world. The Catholic professors, living today the 21th century having tendency of secularisation, materialism and inhumanisation, are also called

to guard scientifically the evangelical values of the Christianity, and to improve the value concerning God and man. The professors, as the member on a high intellectual level of the academic community, engage in studies, educate students, and exercise their great influences over the society through their scientific lectures and the expression of their opinions. Therefore the Catholic professors have the great task to sublime the universal values involving in the culture and the religion to the evangelical values, arranging the 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he faith, and between the faith and the reason, and also promoting their own scientific field and the Christian spirit. And they are also demanded to do their dignified roles on a high level so that all people could be blessed by God, constructing on earth the Kingdom of God, and improving the human rights of the poor, the alienated and the sufferer due to social injustice and structural inequality.

Key words: Catholic professor,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vangelical Value, Faith and Reason.

I. 들어가는 말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 시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으며 또한 신속하게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인류가 인간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해온 지식과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많은 이들이 노력하였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기여해온 이들이 바로 대학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러한 인재를 배출해낸 교수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교수들은 참으로 긍지와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공동선을 위해 활용할 때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입게 된다. 오늘날 각 분야에서 탐구되어 나타난 지식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학문의 발달과 삶의 질을 드높이며, 바야흐로 지식의 신속한 교환과 전달매체인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아 인류가 추구해온 행복한 삶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학문연구와 그 적용을 통한 인류의 선과 행복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러, 반대로 그것이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으로 악용될 때는 또한 견잡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대형사고, 그리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컴퓨터 해커들의 활동,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여 고객의 예금을 훔치는 일, 자연환경의 파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생명의 복제 등 그 범죄행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이며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범죄수법도 발달되고 다양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역시 인간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꾸고 양심을 길러주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이래 교회 안에서 초창기부터 신앙교육과 인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년에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교육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대학교수들이 각자 믿는 종교관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가톨릭 신자 대학교수의 역할과 사명에 한정하여 주로 교회문헌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II. 대학교수의 세 가지 주요활동

대학교수들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즉 연구, 교육, 봉사이다.

1. 연구활동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은 교수로서의 본질적인 사명 중의 하나이다. 교수는 오랜 기간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해당 학문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그 분야에 새로이 개발된 연구업적을 수용하고, 또 자신의 깊은 연구를 통해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노동과 생업에 종사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교수들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지식의 고차원적인 창조기능을 수행한다. 연구는 강의의 질을 높이며, 교수 자신에게 자기 직분의 보람을 갖게 하며, 그 빛나는 연구결과는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오늘날 대학교수들의 연구활동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연구업적이 없는 교수는 퇴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며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기도 한다. 교수는 연구하는 일을 자기의 본업으로 생각해야하며 교수로서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

는 1998년부터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시행하여 1년에 논문을 한편 이상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업적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고 있다.²⁾

2. 교육활동

교수는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새로운 학설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과 학문적 인식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한다. 교수들은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들에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세상의 일들과 학문의 세계를 소개하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인생의 스승이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수는 학생들을 대할 때 너무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마음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하나 하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이 참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 보직을 맡지 않은 평교수는 일주일에 10시간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지도, 면담, 수업계획서의 충실도, 논문지도 실적 등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³⁾

3. 봉사활동

오늘날 대학교수는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요청 받고 있다.⁴⁾ 교수들은 교육과 학문적 연구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을 품위 있게 하고 삶의 질을 드높이는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교수로서의 보람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교수의 전문성은 강연, 특강,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형태를 통해 발휘되며 일반사회 사람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학문적 결과를

2 성심교정의 교수업적 평가 중 연구영역의 평가지표로는 논문, 저서, 학술발표, 외부수탁연구, 수상 및 특허 창작 및 발표 등을 점검한다.

3 성심교정에서 보직교수들 중 처장과 실장은 일주일에 3시간, 부서장급 교수는 6시간, 학부장급 교수는 8시간을 책임시수로 정하고 있다.

4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SCTM, 1997, 12, 28), 16-17항.

소개한다. 그리고 그 기회에 일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요망사항을 받아들이고 사회와 연관된 연구활동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교수가 지식의 상아탑에만 고고하게 머무는 시대는 지나갔다. 사회현실을 직시하며 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의 인간들과 문제를 해결하며, 보다 나은 삶을 제시하는 일은 대학교수가 갖는 특권적인 봉사활동이 될 것이다.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는 교수들의 봉사활동을 교수업적 평가항목에서 고려하고 있다. 교내 보직, 학술강연, 학회활동, 예술과 체육활동,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의 자문 활동 등이 평가된다.

그러면 이렇게 교수라는 직책이 갖는 일반적인 기능을 제시하고, 다음엔 가톨릭계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어떠한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가톨릭계 대학교가 왜 하나의 대학교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가톨릭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III. 가톨릭계 대학교의 본질과 목표

1. 하나의 제도로서 요구되는 가톨릭계 대학교의 가톨릭성

1) 가톨릭계 학교의 고유한 사명

제 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 1965, 12, 28)에서는 가톨릭계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처럼 문화의 목적과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추구하면서도 가톨릭적 고유한 사명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가톨릭계 학교의 고유한 사명은 학교 내에 자유와 사랑의 복음적 정신으로 충만한 학교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청소년이 자기 인격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성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장하도록 그들을 돕는 것과 또 학생이 세계, 생활, 인간에 대해 습득하는 지식이 신앙으로 비쳐지도록 인류의 전 문화를 궁극적 구원 소식에 질서 지어주는 것이다.”⁵⁾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헌은 가톨릭대학교의 목적이 “고급 문화 추진의 전 과정에서 그리스도교적 외양이 공적이고 확고하며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⁶⁾고 말하고 있다.

5 「그리스도교적 교육」(GE), 8항.

한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4월 15일 교회대학과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를 반포하면서 교회대학이나 가톨릭대학교는 그리스도교의 계시와 이와 관련된 문제를 특별히 다룸으로써 복음전파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⁷⁾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전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속대학교와 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교회대학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1) 과학적 조사를 통한 고유분야의 연마와 발전 특히 그리스도교적 계시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지식의 심화, 여기 내포된 진리의 조직적 전파, 계시의 빛으로 각 학문의 최근 발전에 대한 검토, 현대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맞추어 진리를 제시하는 일, 2) 그리고 학생들이 고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획득하도록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라 훈련시키고 이들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며, 교회의 봉사자들의 영속적 교육을 끊임없이 촉진하는 일, 3) 본질상 그리고 교회 성직제도와 긴밀한 일치를 이루면서 복음전파 사업에 걸쳐 지역 및 세계 교회와 굳게 협력하는 일”⁸⁾이다.

2) 가톨릭계 대학교의 제도적 가톨릭성

그후 교황은 11년이 흐른 뒤 이 문헌의 내용을 심화시켜 교황령 「가톨릭대학교」(Universitatibus Catholicis, 1990, 8, 15)를 반포하였는데 이 문헌에 의하면 이 정의가 좀더 개방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객관적이며 보편성을 지닌 표현으로서 가톨릭대학교의 본질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모든 가톨릭대학교는 하나의 대학교로서 엄중하고 비판적 방식으로 탐구 및 교수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공동체에 제공되는 다양한 봉사들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및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학문공동체이다.”⁹⁾

이 정의에 의하면 가톨릭대학교도 다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방식과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문공동체로서 보편성을 지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류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이나 국가, 국제 공동체에 그 학문적 성과

6 같은 글(GE), 10항.

7 「그리스도교적 지혜」(SC), 머리말, III.

8 같은 글(SC), 제 1부, 3조.

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대학교」(UC, 1990, 8, 15), 제 1부, 12항 및 제 2부 2조.

들을 나누고 교류하는 데 봉사하는 학문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톨릭계 대학교가 하나의 대학교로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인류 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대학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제도적 자주권을 소유해야 하며 그것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차원에서 진리와 공동선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소속 구성원들에게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가톨릭계 대학교가 대학 세계 내에서 그리스도교적 현존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9년 9월 9일 제 3차 가톨릭대학 국제회의에 의해 선출된 가톨릭대학교 대표단에게 한 연설에서 가톨릭대학교가 교회의 사명을 제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였다.¹⁰⁾ 그것은 대학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는 인류 구원을 위한 성사적 도구인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론적 뒷받침과 깊고 수준 높은 신앙 이해 안에서 활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톨릭계 대학교의 고유사명을 위한 제도적 임무 수행은 중요한 일이며 그러기 위해선 ‘가톨릭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황령 「가톨릭대학교」(UC)에서 제시하는 가톨릭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요구되는 일은 다음과 같다.¹¹⁾ 즉,

- (1) 대학교 구성원 개인이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소유해야 할 뿐 아니라 대학교 공동체 자체도 그리스도교적 영감을 지니는 일,
- (2) 그리스도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학문 인식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
- (3) 교회가 제시하는 그리스도교적 메시지를 존중하는 일,
- (4) 삶의 초월적 목적을 향해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과 인류 가족 전체에게 제도적인 방법으로 적극 봉사하는 일이다.

이상 네 가지 가톨릭적 요구들은 일반 대학으로서 갖는 연구, 교육, 봉사의 세 가지 기능 이외에 가톨릭대학교가 갖는 제도를 통한 가톨릭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톨릭대학교는 일반 대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가톨릭적 특성’을 지닌 대학으로서 “인간 인식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공동체이며 또한 아울러 가톨릭 사상이 그 안에 실제로 현존하고 작용하는 연구 기관이 되어야 한다”¹²⁾는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대

10 「가톨릭대학교 대표단」(DCU), 3, 6항.

11 「가톨릭대학교(UC), 13항.

12 같은 글(UC), 14항.

학교는 신앙과 문화 사이의 대화를 진작시켜 복음화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¹³⁾ 따라서 가톨릭대학교에서의 연구활동에는 인식의 통합, 신앙과 이성간의 대화, 도덕적 관심, 인간교육 그리고 신학적 전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된다.¹⁴⁾

2. 가톨릭계 대학교의 연구활동 방향

교황청의 가톨릭 교육성과 평신도 평의회 그리고 문화 평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1994, 5, 22)에 의하면 대학은 그 설립 초기부터 교회의 사목적 배려에 의해 탄생된 위대한 결실 중의 하나이며, 교회는 지금도 이러한 대학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목적 관심을 끊임없이 가꾸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선포하는 신앙은 인간의 지성과 마음을 채우는 신앙으로서 신앙을 살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신앙 즉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대학 사도직을 단지 문화와 과학에 대한 공헌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의 연구활동 방향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문 인식의 통합

학문 인식의 통합작업은 가톨릭계 대학교의 연구활동에 요구되는 분야이다. 오늘날 각 분야의 수많은 지식들이 급증함에 따라 각 학문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학문 상호간의 교류가 어렵게 되며 엄격히 구분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톨릭계 대학교는 각 분야에서 수행되는 진리 탐구들이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진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염원들을 모아 고도의 수준에서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적 지식과 사고로부터 참다운 ‘지식의 분별력’¹⁶⁾을 회복하는 일이다. 여기서 ‘지식의 분별력’이란 현대의 과학의 진전과 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과학만능주의적 문화로 야기되는 인간의 과학적, 물질적, 현세적 행복추구로부터 인간의 최후목적과 참된 행복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참다운

13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 & CU), 2항.

14 같은 글(PC&CU), 15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SCTM), 9-10항

15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머리말, 6-7쪽.

16 「가톨릭 교사」(EC), 2항. 「신앙과 이성」(FR), 22-23, 49-91항.

종합적인 판단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충주의, 근대주의, 과학주의, 실용주의, 허무주의와 같은 사조 속에 내포된 사상의 혼돈과 인식의 오류로부터 참된 인식을 회복하여 하느님, 자연,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¹⁷⁾ 그리하여 창조와 인간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계몽되는 인생관, 세계관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개별 학과목들의 의미를 규정하는 인식의 통합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¹⁸⁾

2) 신앙과 이성의 대화

가톨릭대학교에서의 학문 연구는 또한 신앙의 관점과 이성의 관점에서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각 학과목들은 그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연구되는데 도덕적 규범과 일치할 때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일이다. 인간이 파악하는 지상 사물의 진리가 인간이 염원하는 신앙의 진리와 모순된다기보다 동일한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하는 진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방식이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과 이성의 판단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생명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²⁰⁾ 스콜라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처럼, ‘은총이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을 완성시키듯이, 신앙은 이성에 의존하고 이성을 완성한다.’²¹⁾ 그리고 신앙을 통해 조명을 받을 때, 이성은 죄의 불복종 때문에 오는 연약성과 한계로부터 해방되어,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지식으로 고양되는데 요구되는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²²⁾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교육 활동에 있어서는 인간 학문의 진리성 규명을 위해 동원 가능한 여러 수단과 방법에 지성적으로 의존하면서도 그 교육활동을 하느님의 역사에 개방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²³⁾ 그리고 가톨릭 교수들은 학문탐

17 「신앙과 이성」 (FR), 86-91항.

18 「가톨릭대학교」 (UC), 16항.

19 「계시현장」 (DV), 5-6항. 「그리스도교적 교육」 (GE), 10항. 「그리스도교적 지혜」 (SC), 68조.

「신앙과 이성」 (FR), 참조.

2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 ; 「신앙과 이성」은 결코 대립될 수 없다」, 『과학과 신앙』, 7-16쪽. 「가톨릭대학교」 (UC), 17항 참조.

21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 1, 8, ad 2.

22 「신앙과 이성」 (FR), 43항. 「신앙과 이성」 (FR), 9-15, 34, 43항 참조.

23 「영원하신 아버지」 (EP), 13-14항. 「평신도 그리스도인」 (CL), 63항.

구와 자기 의견 표현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받으면서도 언제나 ‘진리의 협력자’²⁴⁾의 자세로서 제시된 진리와의 마땅한 균형과 지혜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3)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판단

가톨릭계 대학교 내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파악되는 연구결과들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갖게되는가를 분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과학과 기계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그것의 윤리적·도덕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간성의 몰락과 인격의 파탄을 초래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낙태, 안락사, 뇌사, 인간복제 등과 같은 생명과학의 분야에서 그 윤리적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²⁵⁾

그러므로 가톨릭계 대학교의 교수들이 자신의 교수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기술적인 것에 대한 윤리적인 것의 우위성, 사물보다는 인격의 우위성, 물질보다는 정신의 우위성, 그리고 하느님의 초월성”²⁶⁾이며, 교수들의 학문적 인식이 양심과 일치될 때 인간 인격이 존중되고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일이다.

4) 신학적 전망 안에서의 종합

가톨릭계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문활동과 인식에 있어서 신학은 신앙과 이성과의 대화를 진작시키고 개별학문들에 의해 수행된 인식들의 종합을 이루는데 특별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²⁷⁾ 신학적 전망과 소양을 통해 개별 학문들에서 파악한 지식들을 인간과 사회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할 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한다. 또한 개별 학문들에서 제공된 학문적 성과들도 신학을 형성하고 이해하는데 풍요롭게 해준다. 신학과 제 학문간의 이러한 긴밀한 상호작용과 역할의 중요성으로 인해 가톨릭계 대학교에서의 신학대학의 설치나 신학 및 가톨릭 교리강좌는 필수불가결의 학문이 된다.²⁸⁾ 그런

24 「사제양성 기본지침」(TI, 1985, 3, 19), 88항.

25 「인간생명」(HV), 14, 24항. 「인간의 구원자」(RH), 15-17항. 「진리의 광채」(VS, 1993, 8, 6), 35-74, 109-113항. 「생명의 복음」(EV), 13-18항.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9항. 참조.

26 「가톨릭대학교」(UC), 제 1부, 18항 및 제 2부 4조 3항.

27 「영원하신 아버지」(FR), 20-24항.

28 「그리스도교적 교육」(GE), 10, 11항. 「사목현장」(GS), 62항. 「신학교육」(TMS, 1976, 2,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 설립된 가톨릭대학교들은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신학은 성서와 성전을 계시의 두 원천으로 삼고 교도권의 가르침에 충실하면서 인간의 제 학문들의 인식을 통합하면서 인간 생명의 의미와 최후 목적을 밝혀줄 복음(기쁜 소식)을 인류사회에 제공하는 종합적인 학문의 역할을 한다.

3. 가톨릭계 대학교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수들의 역할

1) 가톨릭적 정체성을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가톨릭대학교」(UC)에 의하면 가톨릭대학교가 ‘가톨릭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학교 자체에 있는데, 그 책임은 대학교 총장이나 이사진, 대학당국자, 그리고 대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나누어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톨릭적 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들과 직원들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⁹⁾ 그리고 이러한 가톨릭적 정체성은 교수의 자질과 가톨릭 교리에 대한 존중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교수와 직원들은 임명받을 때에 그러한 가톨릭적 정체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증진시켜야 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³⁰⁾

한편, ‘가톨릭대학교’라는 명칭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톨릭대학교는 교회권위가 문서로서 그것을 인정하거나 교회공법인이 주관하여야 하며 주교회의나 해당 교구장들은 가톨릭 교리의 원칙들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교회법은 명시하고 있다.³¹⁾ 교황청 문화위원회가 1986-1987년에 걸쳐 ‘교회와 대학 문화’라는 주제로 대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의 교구, 수도회 등에서 운영하는 8000여 개의 대학들 중 587개교만이 ‘가톨릭대학교’로서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

22), 59-61, 121-127항. 「그리스도교적 지혜」(SC), 머리말, III. 『교회법전』(CIC), 제 811-812조, 815조, 821조. 「가톨릭대학교」(UC), 제 1부, 19항 및 제 2부 제 4조 5항. 「대학문화와 교회 활동」(PCCU), 1항.

29 「가톨릭대학교」(UC), 제 2부 제 4조 1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SCTM), 19항.

30 같은 글(UC), 제 2부, 제 4조 2항.

31 『교회법전』(CIC), 제 803조, 808조, 810조.

고한 바 있다.³²⁾

2) 가톨릭계 대학교 공동체의 개방적 보편성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는 하나의 대학교로서 대학교가 갖는 보편적인 목적인 학문 탐구와 인식을 위해 보편적으로 개방된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이 대학 공동체 안에는 신자들뿐 아니라 타교회 공동체, 타종교의 구성원들과 공동체 그리고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비록 가톨릭 교회와 종교적으로 다르지만 이들도 학문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고 대학 내의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가톨릭대학교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하나의 인간공동체로서 대학 내의 타종교인들, 비신자들과 더불어 진리에 대한 공동헌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동안목에 있어서 상호존중과 진실한 대화, 개인적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대학 구성원 각자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학교 공동체는 교수, 학생, 직원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교수들은 대학공동체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개별 학문들에서 탐구된 진리들을 학생들에게 교수하는 동시에, 신자 교수들은 신앙과 생활, 직업적 능력과 그리스도교적 지혜 사이의 통합을 위해 그리스도교적 삶을 증거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³³⁾

3) 가톨릭적 정체성을 위한 신자 교수들의 적절한 수효의 중요성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가톨릭계 대학교에서 신자 교수들이 수적으로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가톨릭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일정한 수가 확보되는 일이 중요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가톨릭대학교」(UC)에서는 가톨릭계 대학교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가톨릭계 대학교가 가톨릭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종교인들이 그것을 존중해야 하며 비가톨릭 교수의 수효가 가톨릭성을 저해할 정도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 “타교회, 타교회 공동체 또는 타종교에 속한 대학 교수와 직원들은 물론이고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그들과 모든 학생들도 대학교의 특유한 가톨릭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비가톨릭 교수의 수효가 대학교나 고등 교육기관의 가톨릭적 정체

32 「교회와 대학 문화」(CUC),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 56호, 73면.

33 「그리스도교적 지혜」(SC), 머리말, III 및 22-27조. 「가톨릭대학교」(UC), 21-26항.

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제도 내에서 다수를 이루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톨릭대학교는 제도적으로도 가톨릭적이고 또 여전히 가톨릭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³⁴⁾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의 가톨릭대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의 수를 참고로 제시하면 각주³⁵⁾와 같다. 가톨릭대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평균 신자율(8.2%)³⁶⁾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가톨릭대학교의 가톨릭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제도적으로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수들의 신자율(53%)이 학생들의 신자율(36%)보다 높은 것은 그 만큼 대학교의 가톨릭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교수들의 영향력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신자 교수들은 가톨릭계 대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갖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톨릭 신자교수들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톨릭계 대학교가 가톨릭성을 갖는 종교적 측면의 배려도 더 중요하다.³⁷⁾

34 「가톨릭대학교」(UC), 제 2부, 제 4조 4항.

35 (199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정별 가톨릭 신자 비율, 1999년 6월 4일 기준)

교정 집단	성신교정	성의교정	성심교정	계
교수	31/ 31(100%)	65/ 131(50%)	88/ 184(48%)	183/ 346(53%)
직원	75/ 75(100%)	73/ 107(68%)	73/ 122(59%)	221/ 304(73%)
조교	파악 안됨	파악 안됨	16/ 53(30%)	16/ 53(30%)
학생	389/ 389(100%)	271/ 885(31%)	1654/ 5076(33%)	2314/ 6350(36%)
계	495/ 495(100%)	409/ 1123(36%)	1830/ 5435(34%)	2734/ 7053(39%)

※ 여기서 성심교정의 대학원 학생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성신교정은 전원이 가톨릭 신자로서만 구성된 순수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의교정은 병원을 제외하고 의과대학에 한정하여 고찰한 수치로서 가톨릭 신자는 평균 36%이다. 성심교정의 경우엔 평균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세 교정을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교수들은 346명 가운데 183명(53%), 직원들은 304명 가운데 221명(73%) 그리고 학생들은 6350명 가운데 2314명(36%)이며 조교 비율이 성심교정만 파악되었으므로 조교비율은 제외하고 교수, 직원, 학생들의 전체비율은 총 7000명 가운데 가톨릭신자가 2718명으로서 신자 비율은 38.82%를 차지한다.

3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발표한 1998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낸 한국천주교회의 교세 현황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총인구 4685만 8463명 가운데 천주교 신자 수는 380만 4094명으로서 평균 복음화율이 8.12%이다. (『한국천주교교세통계』(1998, 12, 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6쪽). 한편, 1998년도 서울대교구의 경우 신자 총수는 125만 3092명으로서 서울인구 1226만 2602명에 대해 복음화율은 10.22%이다. 그리고 대구대교구의 복음화율은 7.8%로 발표되었다. (같은 책, 6쪽).

37 그 한 예로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경우 성삼일 전례가 성당에서 거행되는 시간에도 수

그리고 가톨릭대학교는 지역교회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교회 생활에 동참하는 학문적 제도이며, 학문과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일원이므로 전체교회와의 일치 안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 교도권을 따르며 가톨릭성을 드러내는 대학교가 되도록 하는데, 대학교수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V. 가톨릭 신자 교수들의 역할

교회 내의 평신도들은 자신이 받은 신앙을 바탕으로 복음선포와 인간을 성화하고 현세 질서 안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질서를 완성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인간 구원에 이바지 할 사명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평신도 사도직이라고 한다.³⁸⁾ 대학교수들의 근본 사명은 연구활동을 통해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학생들과 사회 안에서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교황청 문화위원회가 조사한 「교회와 대학 문화」(CUC, 1988)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대학가에서 볼 수 있는 세속주의의 만연, 기술위주의 문화의식, 극도의 전문화, 교수들의 타성적인 직업화, 대학 조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의 급증, 그리고 학문의 순수성을 침해하는 정부 당국의 과도한 통제, 학문 자유의 부재, 문화적 차원을 무시한 경제지향적인 직업지향성, 종교적 무관심 등을 지적하면서, 가톨릭계 대학들 안에서의 교목활동, 종교연구, 사목 종사자들에 대한 영성교육과 사목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헌 이후 6년 뒤에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이 낸 「대학문화와 교회활동」(1994)에서는 대학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학생과 교수의 공동체’이기를 포기하고 정부와 경제계의 도구로 전락하여 대학본연의 사명인 인간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직업적인 전문인 양성만을 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분별력 있는 인간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³⁹⁾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내의 책임 있는 남녀 평신도들, 특히 대학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신자교수회 등을 결성하여 신앙활동과 증거생활을 증진시키기를 제안하고 있다.⁴⁰⁾ 가톨릭 신자 교수들은 대학교 내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

업이 진행되므로 전례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교수들도 전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에 대해 : 줄문, “가톨릭대학교”, 《사목》, 248, 1999.9, 98-100쪽 참조.

38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AA, 1965, 11, 18), 2항.

39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6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SCTM), 5-7항.

각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⁴¹⁾

1. 교회의 선익과 사회 발전에 대한 봉사

가톨릭대학교의 교수들은 그리스도교적 정신과 원리에 영감을 받아 학문 탐구로 얻어진 지식들을 활용하여 교회의 선익과 사회발전에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⁴²⁾ 가톨릭 교육성이 낸 「사제양성 기본지침」(TI, 1985, 3, 19)에서는 ‘교회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교회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교회 안에서 영예로운 임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또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자기에게 이런 임무를 맡겨준 교회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특수 위치를 감안해서 언제나 교회 정신을 명백히 드러내고, 교도권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과 신자들의 신앙을 길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⁴³⁾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양성」(PDV, 1992, 3, 25)에서는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신학자들은 신학을 가르칠 때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낸 교의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인식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분야의 인간 지식과 생활표현 양식들을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통일시킬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주도록 강조하고 있다.⁴⁴⁾

일반적으로 교회 내의 평신도들은 자신의 직분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계 안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⁴⁵⁾ 특히

40 「교회와 대학 문화」(CUC), 1-2항.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는 교수 성서모임이 있으며 신자교수회는 1999년 10월에 결성되었다.

41 이에 대해 : 「가톨릭대학교」(UC), 30-49항. 「교회와 대학 문화」(CUC), 2-9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SCTM), 4항.

42 「가톨릭대학교」(UC), 31-37항. 「평신도 그리스도인」(CL), 25-31항.

43 「사제양성 기본지침」(TI), 87항. 「교회현장」(LG), 25항. 「신학교육」(TMS, 1976, 2, 22), 44-77, 122항. 「현대의 사제양성」(PDV, 1992, 3, 25), 67항 참조. 교회의 이름으로 직책을 수행하는 신자는 사도좌가 승인한 격식에 따라 신앙선서와 충성서약을 하도록 「교회법」 8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앙선서와 충성서약 내용과 격식에 대해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 59호 (1990, 5, 10), 24-26쪽.

44 「현대의 사제양성」(PDV), 67항.

45 「평신도 사도직」(AA), 2, 5항 ; 「교회현장」(LG), 33항 ; 「그리스도교적 교육」(GE), 3,

교수들은 자신에게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학문의 보편적 태도와 신앙의 계시적 차원을 연결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미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다.⁴⁶⁾ 과학적 탐구의 결과들과 더불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 모든 이에게 각자 그 몫을 정당하게 돌려주는 정의 구현, 개인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수준 높은 삶을 위한 질적 향상, 자연을 보호하는 일, 평화로운 세상의 건설, 세계 자원의 공평한 분배, 정치적, 경제적 안정, 그리고 현대인간이 안고 있는 제 문제들에 대해 그리스도교적인 윤리관과 신학적 관점에 따라 참다운 선의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⁴⁷⁾

그리고 가톨릭 교수들은 현대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가치들과 규범들을 그리스도교적 정신과 복음의 빛 안에서 해석하며, 인간 각자의 온전한 성숙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도 봉사하도록 권고된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기구들과 협력하고 특히 국제연합의 여러 기구들, 그리고 교황청에 의해 설립된 가톨릭계 대학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⁴⁸⁾

가톨릭 학자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통해 현대사회의 공동선을 촉진 하는데 수준 높은 자문을 할 수 있으며, 강연,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대중매체들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폭넓은 대중에게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입각한 학문적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교수들의 사목적 봉사

교수들의 사목적 봉사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정신으로 학문 연구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해서 대학공동체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톨릭대학교가 대학을 통해서 학문적 사명과 더불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교수들의 사목적 봉사는 큰 역할을 담당한다.

5, 7항 ; 「선교활동」 (AG), 15, 21, 41항. 「평신도 그리스도인」 (CL), 14항 등.

46 같은 글(AA), 28-33항.

47 「가톨릭대학교」 (UC), 31-32항.

48 같은 글(UC), 36-37항.

1) 성체성사への 참여

가톨릭계 대학교의 가톨릭적 동질성은 가톨릭 정신과 신앙에 의해 회개의 삶을 살고 하느님과 이웃에 봉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전례 안에서 표현되는 성체성사의 거행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⁴⁹⁾ 가톨릭대학교 내의 타종교인에게도 그들의 종교적 자유와 활동이 보장되는 동시에 가톨릭 신자 교수들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인 적극성을 보일 때 다른 이에게도 성체성사에 참여하려는 선의의 열망과 자극을 주게 된다.⁵⁰⁾

2)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봉사

가톨릭 교수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입각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 때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다.⁵¹⁾

3) 복음적 가치의 증진과 그리스도교적 투신

가톨릭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한 교수활동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증인’⁵²⁾이 되면서 자신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모범과 복음적 가치들은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인과 가정의 복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신성불가

49 같은 글(UC), 38항.

50 교회문헌들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톨릭대학교의 성심교정의 경우 신자교수들의 미사참여율은 저조하다. 그 이유로는 신자교수들의 종교적 무관심, 과중한 연구업적과 강의 시간의 부담, 그리고 학교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의 결여라고 볼 수 있다. 후자의 이유로는 매일 거행되는 주간 미사의 경우 일정한 종교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미사 시간에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성체성사에 참여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 졸문, “가톨릭대학교(1)”, 위의 책, 98-100쪽.

51 「평신도 사도직」(AA), 8항. 「평신도 그리스도인」(CL), 37항. 「가톨릭대학교」(UC), 39-40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SCTM), 15항.

52 「평신도 그리스도인」(CL), 62항.

침의 생명권을 존중하며, 종교적으로 투신하려는 열망을 갖게 해 준다.⁵³⁾ 한편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의 자료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1994)에서는 대학 내의 신자수가 상대적으로 빈약할 경우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익명화 되면서,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을 퍼뜨리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신학자들의 보강과 아울러 대학 내의 사목활동의 쇄신이 필요하다.⁵⁴⁾ 이처럼 가톨릭 신자 교수들이 갖는 사목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3. 인간문화의 복음적 발전에의 기여

가톨릭 교수들은 자신의 본질적 임무인 교육활동을 통해 자기 이전 세대에 이룩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수렴하고 교육을 매개로 하여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을 수행한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 문화의 다양성을 긍정하며 인간이 이룩한 문화 안에 인간의 소중한 체험과 가치가 농축되어 있음을 가르친다.⁵⁵⁾ 그리고 인간이 이룩한 모든 문화는 하느님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수들은 인간이 이룩한 어떠한 형태의 문화와도 대화를 증진시켜 복음과 문화의 상호변혁을 통해 인간 문화가 복음화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⁵⁶⁾

복음은 인간의 제 문화들과 만나 문화 속에 내포된 부정적 요소들을 계시로 조명받은 참된 지식의 분별력⁵⁷⁾을 통해 정화하고, 현세질서를 그리스도교화 하며, 인간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복음도 인간 문화를 통해 풍요롭게 되는데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에 기여한다.⁵⁸⁾

복음은 어느 특정 문화와 동일시 될 수 없지만, 모든 문화를 초월한다. 복음은 인간의 문화와 결합되어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며,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 문화가 갖고 있는 요소

53 「사목현장」(GS), 27항. 가톨릭 교육성, 「평신도 교육자들에 관하여, 학교 내의 신앙의 증인들」. 「평신도 그리스도인」(CL), 38항. 「가톨릭대학교」(UC), 41항.

54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1부의 15항.

55 「사목현장」(GS), 59항.

56 「평신도 사도직」(AA), 7항. 「가톨릭 교사」(EC), 1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SCTM), 14항.

57 「신앙과 이성」(FR), 22-23, 49-63항.

58 「현대의 복음선교」(EN), 19-20항. 「그리스도교적 지혜」(SC), 머리말, I. 「신앙과 이성」(FR), 70-74항.

들을 활용하여 이룩된다.⁵⁹⁾ 인간 문화 안에 내포된 보편적인 가치들은 인간의 인격성, 자유와 책임, 인간의 존엄성, 신을 향한 초월성이다. 가톨릭 교수들은 인간 문화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정의 가치와 또 그 가정을 이루는 남녀 양성에 의한 혼인의 가치를 보호하고, 현대에 만연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변화시킬 사명과 현대의 과학기술, 기계문명, 대중매체수단, 교통수단, 종교, 문화, 예술, 의학, 체육 등의 분야와 만나 대화하고 또한 그 안에 내포된 문화적 가치들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여 인간 문화의 복음적 발전에 기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⁶⁰⁾ 교황령 「가톨릭대학교」(UC, 1990)는 가톨릭 교수들이 현대의 자연과학과 대화를 나누며 신앙과 이성간의 관계 차원에서 인식론적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 “그리스도교 신자 연구원은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보다 높은 진리에 의해 인간 지성을 풍요롭게 해주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⁶¹⁾

문화와의 복음적 대화에 있어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다양한 문화 안에 내포된 종교적 차원에서 만남과 대화를 이룩하고 교회 교도권의 지침을 존중하면서 교회일치를 위한 대화와 종교간의 대화를 진작시켜 상이한 종교들 안에 내포된 영적 가치들을 식별하고 복음화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그 활동이 요구된다.⁶²⁾

4. 선교와 복음화 활동에의 기여

가톨릭 교수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갖고 있듯이 선교와 복음화 활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⁶³⁾ 복음전파 사명은 교회 구성원의 근본사명으로서 참된 사도직 수행은 말로써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며, 신자들의 신앙을 굳게하며 그들이 복음적 생활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⁶⁴⁾ 복음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룩된 인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활동이며, 복음화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켜나감으로써 쇄신되어 하

59 「사목현장」(GS), 58항. 「가톨릭대학교」(UC), 44항.

60 「사목현장」(GS), 60-62항. 「평신도 그리스도인」(CL), 38, 44항. 「신앙과 이성」(FR), 23항.

61 「가톨릭대학교」(UC), 45-47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SCTM), 14항. 「신앙과 이성」(FR) 참조.

62 같은 글(UC), 47, 60항. 「아프리카 교회」(EA), 102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SCTM), 11항.

63 「교회의 선교사명」(RM), 71-72항.

64 「평신도 사도직」(AA), 6항.

느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⁶⁵⁾

복음화된 가톨릭 교수들이 자신의 모범적 생활과 교수로서의 세 가지 기능 즉 연구와 교육과 봉사의 생활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 복음적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다. 가톨릭 교수들은 가톨릭대학교에서 ‘가톨릭성’을 보여주는데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세속화와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무신론으로 만연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적 메시지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것이다.⁶⁶⁾ 제 2차 바티칸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AA)에서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일깨우고 있다 : “현대에는 새로운 물질이 일어나고 중대한 오류가 만연되어, 종교와 윤리질서와 인간 사회 자체까지도 근본적으로 뒤엎어 버리려하므로 이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평신도들이 각기 재능과 지식에 따라, 교회의 정신대로 그리스도의 원리를 밝혀주고 옹호하며 현대의 여러 문제 해결에 적응시켜야 할 자신의 임무를 보다 열심히 수행하도록 권고한다.”⁶⁷⁾

가톨릭대학교에서 수행되는 학문활동의 근본 목표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사명수행에 있어서 가톨릭 교수들의 사명은 그 핵심적인 분야와 수준에서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교황령 「가톨릭대학교」(UC, 1990)에서는 가톨릭 교수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 안에서 그 복음적 생활에의 모범과 교수로서의 활동 안에서 선교와 복음화 활동에 투신하는 그리스도교적 대학활동으로 전개되기를 요청한다 : “교회는 이 세상에서 수행되어야 할 자신의 구원사명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이런 연구소들을 갖고자 한다. 즉, 교회는 그 연구소들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또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기관이 되어 주기를 원하고 또 후원한다.”⁶⁸⁾

5.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대학교수들의 역할

1)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대학사회의 교회활동

65 「현대의 복음선교」(EN), 18-39항.

66 같은 글(EN), 76항. 「평신도 그리스도인」(CL), 4-7, 44항.

67 「평신도 사도직」(AA), 6항.

68 「가톨릭대학교」(UC), 49항.

새천년 대학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해 1994년에 발표된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문헌에서도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사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봉사, 대학 안에서의 교회활동은 새로운 천년대에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요구이며, 대학 내에 그리스도의 기쁜소식을 전할 능력이 있는 신앙공동체를 갖고 있는 대학은 가장 풍부한 결실을 낳는 문화의 용광로로서 이러한 사도직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⁶⁹⁾ 그리고 한 천년기가 교차하는 밀레니엄의 시기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가톨릭계 대학교의 교수들은 새로운 선교열정으로 학원 내의 복음화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지적으로 수준 높은 책임 있는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⁷⁰⁾ 이것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교수사회의 사도직 활동으로서 지성적 아레오파고(Areopagus) 영역에서의 새로운 복음화 활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⁷¹⁾

2) 대학교수들의 대회년

이런 맥락에서 1999년 9월 23-26일 로마에서 개최된 "가톨릭계 대학 사목담당 주교회의의 대표자회의"에서도 2000년 대회년에 거행될 ‘대학교수들의 대회년’(2000, 9, 4-10)을 준비한 바 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본인으로서 2000년 5월 21일에 개최된 한국가톨릭교육자대회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나라의 가톨릭 교육을 위한 방향과 전망을 스크린하고 또한 로마에서 열리는 대학교수들의 대회년 세계대회를 위해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로마에서 거행된 “대학교수들의 대회년” 세계행사의 주제는 “새로운 인문주의를 위한 대학”(L'Université pour un nouvel humanisme)으로서 특히 평신도 대학교수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로마세계대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크게 네 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의 주제 밑에 총 52개의 소주제로 분할되어, 이탈리아의 19개 도시와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개최된 바 있다.⁷²⁾ 아울러 교황청 2000년 대회년 준비사무국에서는 가

69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결론.

70 「평신도 그리스도인」(CL), 34-36, 64항. 「제삼천년기」(TMA), 21, 57항.

71 같은 글(CL), 44항.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2부의 3항 및 결론.

72 대학교수들의 대회년 일정 :

① 2000, 9, 4-8 : 이탈리아의 여러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에서 교수들의 전문적 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됨.

② 2000, 9, 9-10 : 로마에서

톨릭 신자교수들의 명단(각 대학별, 교구별)과 가톨릭계 대학교의 교목실장들의 명단(각 대학별, 각 교구별)을 각국에 요청하여 준비한 바 있다. 그리고 병행하는 행사들로서 ‘대학행정 관리책임자들의 세계대회’, ‘대학 대표학생들의 세계대회’, ‘각 대학 교목실장들의 세계대회’가 로마에서 이 기간 중 함께 열렸다. 이러한 대학교수들의 대회년 행사와 계획의 방향들은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 대학사목의 중요성과 그리고 가톨릭 신자 대학교수들의 사명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21세기에 요구되는 대학교수들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⁷³⁾

3) 공동 유대의 협력관계

대학교수들의 사도직 활동은 수준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도직 활동에 있어서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교회 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들 간의 그리고 일반 대학들과도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교회의 사목자와 수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관계는 비가톨릭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요구된다. 그리스도인의 사도적 목적이 추구하는 인간에 관한 공통된 가치는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인간의 공통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⁷⁴⁾

9, 9 : 교황 알현 및 학술작업보고, 참회예절 거행

9, 10 : 교수들의 대회년 미사 거행

③ 교수들의 대회년 토론 대주제 (4분야)

- a) 인간 : 계통학, 생물학, 전기학의 주제하에 9개의 소주제로 개최됨
- b) 인간의 도시. 사회-계층-경제 (19개의 소주제로 개최됨)
- c) 학문들의 전망. 탐구, 기술, 적용 (13개의 소주제로 개최됨)
- d) 창조성과 기억. 상징적, 문학적, 음악적, 드라마틱적 예술들 (11개의 소주제) (이상 총 52개의 소주제)

④ 학술 심포지움 도시들 : Assise, Benevento, Bologna, Campobasso, Cassino, Chieti, Fiuggi, Florence, L'Aquila, Messina, Milan, Modena, Naples, orvieto, Rimini, Rome, Sassari, Urbino, Viterbe (19개 도시)

73 *Rencontre Mondiale des Professeurs d'Université - L'université pour un nouvel humanisme* (4-10 Septembre 2000), Rome. *L'Università per un nuovo unanimesimo* (Il Giubileo degli Universitari), Itinerario teologico pastorale, Elledici, Torino, 1999.

74 「그리스도교적 교육」(GE), 12항. 「평신도 사도직」(AA), 25-27항. 「가톨릭대학교」(UC), 제 2부, 제 5조, 1항 및 제 7조. 「대학문화와 교회활동」(PCCU), 12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V. 맺는 말

이상 가톨릭계 대학교 교수들이 수행해야 할 대학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톨릭 교수들도 일반 교수들처럼 연구, 교육,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가톨릭계 대학교의 제도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학문과 교회와 사회발전에 큰 역할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가톨릭 교수들은 21세기를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속화,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적 가치를 학문적으로 수호하고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이 요청된다. 교수들은 대학 공동체의 수준 높은 구성원으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며 그들의 학술강연과 견해표명으로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 분야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정신과 입장을 함양하여 신앙과 이성,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정립하고 문화와 종교들 안에 내포된 보편적 가치들을 찾아내어 복음적 가치들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 불의와 구조적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간 세상을 하느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로 건설하며, 다같이 하느님의 축복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역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서 있는 가톨릭 학교」(SCTM), 16항.

*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 헌장, 교령, 선언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4판).

「계시헌장」(DV) : 계시헌장(Dei Verbum, 1965, 11, 18)

「교회헌장」(LG) :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Lumen Gentium, 1964, 11, 21)

「그리스도교교육」(GE) :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 1965, 12, 28)

「사목헌장」(GS) : 현대세계의 사목헌장(Gaudium et Spes, 1965, 12, 7)

「사제양성」(OT) :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Optatum Totius, 1965, 10, 28)

「사제직무」(PO) :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1965, 12, 7)

「선교활동」(AG) :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Ad Gentes, 1965, 12, 7)

「평신도 사도직」(AA) :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11, 18)

* 기타 교회 문헌들

「가톨릭 교사」(EC) : 제라르 드후와 주교가 몬트리올 가톨릭대학교에서 행한 강연, *L'enseignant Catholique, un prophète dans le monde actuel, L'Osservatore Romano*, N. 40 (4 Oct 1988), 10-11, 안병철 역, 「가톨릭 교사 : 오늘의 세계 속의 예언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52, 1989, 7, 1.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DC) : (계간 : 가톨릭 교회의 회칙, 사도적 권고서, 교서, 선언, 메시지 등에 대한 문헌집, Documenta Catholica),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창간호부터.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차원」(RDECS) :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차원』, Religious Dimension of Education in a Catholic School.

「가톨릭대학교 대표단」(DCU)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대학교 대표단에게 행한 담화문』, 1989.9.9.

The Holy Father addresses Delegates of Catholic Universities, *L'Osservatore Romano*, N. 40 (1989, 10, 2), 11면, 최영철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56, 1990.1.1.

「가톨릭대학교」(UC)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 de Universitatibus Catholicis, 1990, 8, 15 : AAS, 82, 1475-1509: *L'O-*

sservatore Romano (1990, 9, 26 이태리판).

「과학과 신앙」 : 교황청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기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교황청 관보」 (AAS) : Acta Apostolicae Sedis(1909 ff).

「교회법전」 (CIC) : 한국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편역, 『교회법전』 (Codex Iuris Canonici, 1983, 1, 25, 라틴어-한국어 대역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교회와 대학 문화」 (CUC) : 교황청 문화위원회 보고서, 「교회와 대학 문화」 (The Church and University Culture, *Church and Cultures* (1988), N. 9, 강대인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56, 1990.1.1).

「교회의 선교사명」 (RM)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 (Redemptoris Missio, 1990, 12, 7), 정하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그리스도교적 지혜 시행규칙」 : 가톨릭 교육성,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1979, 4, 29), 『사제양성』,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그리스도교적 지혜」 (SC)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스도교적 지혜」 (Sapientia Christiana, 1979, 4, 15 : 교회대학 및 대학교에 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사제양성』,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대학교수들의 세계 모임」 (RMPU) : Congrégation pour l'Education Catholique, Conseil Pontifical de la Culture, Vicariat de Rome, "Rencontre Mondiale des Professeurs d'Université - L'Université pour un nouvel humanisme", 4-10 septembre 2000, Rome.

「대학문화와 교회활동」 (PC & UC)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평신도 평의회, 문화평의회, 「대학문화와 교회 활동」 (The Presence of the Church in the University and in University Culture, 1994, 5, 22),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DC), 제 10호(1999), 187-210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복음의 증거」 (ET) :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증거」 (Evangelica Testificatio, 1971, 6, 29), 김남수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수도생활에 관한 교회문헌 합본, 1991).

「사제양성 기본지침」 (TI) : 가톨릭 교육성, 「사제양성의 기본지」 (Triam Iustra, 1985, 3, 19), 김남수 역, 『사제양성』.

「사제양성」 :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생명의 복음」 (EV)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Evangelium

Vitae, 1995, 3, 25), 송열섭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신앙과 이성」(FR)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신앙과 이성」(Fides et Ratio, 1998.9.14, 이재룡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신앙과 이성은 결코 대립될 수 없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은 결코 대립될 수 없다」, 『과학과 신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신학교육」(TMS) : 가톨릭 교육성, 「미래 사제들의 신학교육에 관한 서한」(Tra I molteplici segni, 1976, 2, 22), 정승현 역, 『사제양성』,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영원하신 아버지」(AP):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Aeterni Patris, 1879, 8, 4), 이재룡 역, in 『신앙과 이성』의 부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인간생명」(HV) : 교황 요한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Humanae Vitae, 1968, 7, 29), 김남수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2판).

「인간의 구원자」(RH)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 3, 4), 성염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제삼천년기」(TMA)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제 삼천년기」(Tertio Millennio Adveniente, 1994, 11, 10), 심상태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SCTM)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의 회람,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La Scuola Cath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1997, 12, 28), in 『가톨릭교회의 가르침』(DC), 제 13호(2000),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3-208쪽.

「진리의 광채」(VS)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1993.8.6, 정승현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평신도 그리스도인」(CL)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 12, 30), 강대인 역,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9.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 신앙의 증인들」(LCC) :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 신앙의 증인들」(Lay Catholics in Schools : Witnesses to Faith).

「현대의 교리교육」(CT)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교리교육」(Catechesis Tradendae, 1979, 10, 16), 성염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0.

「현대의 복음선포」(EN) :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포」(Evangelii Nuntiandi, 1975, 12, 8), 이종흥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현대의 사제양성」(PDV)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

성」(Pastores Dabo Vobis), 윤민구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L'Ecole Catholique Au Seuil du Troisième Millenaire : Congrégation pour l'Education Catholique (pour les Séminaires et les Institutions d'Enseignement), "L'Ecole Catholique Au Seuil du Troisième Millenaire", (Rome, 28 décembre 1997), Prot. N. 29096.

L'Università per un Nouvo Umanesimo :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Pontificio Consiglio della Cultura, Diocesi di Roma, "L'Università per un Nouvo Umanesimo", (Il Giubileo Degli Universitari), Itinerario teologico pastorale, Editrice Elledici, Torino, 1999.

Rencontre Mondiale des Professeurs d'Université - L'université pour un nouvel humanisme (4- 10 Septembre 2000, Rome) : Congrégation pour l'Education Catholique, Conseil Pontifical de la Culture, Vicariat de Rome, *Rencontre Mondiale des Professeurs d'Université - L'université pour un nouvel humanisme* (4- 10 Septembre 2000), Rome.

* 논문

김웅태, 「가톨릭대학교(1)」, 《사목》 24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9.

_____, 「가톨릭대학교(2)」, 《사목》 24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10.